

동해 표기의 최근 논의 동향과 지리학적 지명연구의 과제

주성재*

Recent Discussions on the Naming of the Sea between Korea and Japan and Topics of the Geographical Toponymy

Sungjae Choo*

요약 : 이 연구는 동해 표기와 관련된 최근의 논의 동향을 정리한 후, 이로부터 지리학적 지명연구의 과제를 도출하고 주요 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2년에 있었던 국제수로기구와 유엔지명표준화회의의 총회는 동해 표기에 관해 뚜렷이 다른 한국과 일본의 입장이 반복되어 노출되었다. 그 논쟁에서 향후 지리학적 지명연구에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네 가지 주제가 정리되었다. 첫째, 지명 병기의 필요성, 병기 대상의 특성과 인식 등 지명 병기의 문제; 둘째, 반폐쇄해, 배타적 경제수역 등 바다의 정치지리적 특성과 명칭 사용을 연결시키는 연구; 셋째, 한국인들의 정서에 밀착된 지리적 실체로서의 바다와 그 명칭과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 넷째, 보다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적절한 용어의 정의를 위한 연구 등이 그것이다.

주요어 : 동해 표기, 지리학적 지명연구, 지명 병기, 정서적 밀착, 무형문화유산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summarize recent discussions on naming the sea between Korea and Japan and to draw some research topics of the geographical toponymy. The International Hydrographic Conference and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held in 2012 repeatedly saw clearly different positions of Korea and Japan on the naming of the sea. From the debates, four topics appeared distinctly which deserve receiving continuous interests in the field of geographical toponymy. These include: necessity of dual naming and characteristics of, and perceptions on the object of dual naming; political economic nature of the sea, e.g. semi-enclosed sea, EEZ, and relevant use of names; relationship between the sea containing strong emotional ties and its naming; additional definition of toponymic terminologies to proceed with more objective and logical discussions.

Key Words : East Sea naming, geographical toponymy, dual naming, emotional ti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1. 서론

국제적으로 ‘일본해(Sea of Japan)’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에 대해, 한국인들

에게 더 친숙한 이름 ‘동해(East Sea)’를 국제기구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노력은 올해로 20년을 맞이했다.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한 이듬해 뉴욕에서 열린 제6차 유엔지명표준화 총회(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이 논문은 2011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1-362-H00001).

*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Kyung Hee University), sjchoo@khu.ac.kr,

UNCSGN)(1992)에서 이 수역에 대한 또 다른 이름 ‘동해’를 존중해 줄 것을 한국정부의 대표가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언급했던 것이다(United Nations, 1993, 21). 바다 이름의 국제 표준화를 담당하는 국제 수로기구(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IHO)에는 1994년 이래 ‘일본해’ 표기의 시정을 사무국에 요구했고, 1997년 제15차 국제수로 총회(International Hydrographic Conference, IHC)에서 처음으로 ‘동해(East Sea)’를 포함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Lee, 2004, 4).

이후 이 두 국제기구에 대한 한국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의 이슈 제기는 계속되었다. 역사적 정당성, 바다 이름 표기의 방법, 국제적 규범과 관례 등 여러 논점에서 다양한 주장이 펼쳐졌고, 이에 대한 일본의 반론이 전개되었다(Lee, 2004; Choo, 2005; Choo, 2007). 그러던 중 5년마다 열리는 이 양대 국제기구의 총회가 모두 개최된 2012년은 동해표기 문제제기 20주년과 맞물려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해로 기록된 것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동해 표기와 관련된 최근의 논의 동향을 정리하고, 이 문제와 관련된, 또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지리학적 지명연구의 과제를 도출하여 토론하는 데에 있다. 필자는 선행연구(Choo, 2011b, 444)에서 “지명을 통해 인간과 지역의 관계성을 규명하고 이해하는 것, 지리적 표현으로서 지명의 구성을 일반화하고 유형화하는 것, 지명의 사용자와 사용대상을 기준으로 지명을 분류하고 그 표기법을 제안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지명 표준화의 방법과 지명 데이터베이스 관리의 수단을 제시하는 것”을 언어학적 지명연구와 차별화한 지리학적 지명연구의 주제로 제시한 바 있다. 동해 표기 또한 지명연구의 대상이라고 볼 때, 이러한 지명연구 주제와 연결하여 논의를 풍성하게 만드는 것은 학술적 가치를 더해줄 뿐 아니라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줄 수 있으리라 믿는다.

동해 표기의 최근 논의는 2012년에 있었던 국제수로 총회와 유엔지명표준화 총회의 결과를 검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이와 더불어 현재 동해 수역의 표기와 관련된 각국 정부 지명기구와 민간 지도제작

사의 동향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찾는다. 이렇게 정리된 현재의 상황으로부터 지리학적 지명연구의 주제들을 도출하고, 각 주제별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논의의 평가에 기초하여 향후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을 제안하고자 한다.

2. 동해 표기 관련 최근의 논의 동향

1) 제18차 국제수로기구 총회(2012년 4월, 모나코)

국제수로기구(IHO)가 동해 표기와 연결되는 것은 이 기구가 해양관련 활동의 국제표준화의 일환으로 세계 모든 바다의 경계와 이름을 규정하는 책자 ‘해양과 바다의 경계(Limits of Oceans and Seas, 발간번호 S-23)’를 발행하기 때문이다. 1929년 초판이 발행될 때 동해 수역에 대해 ‘일본해(Japan Sea)’ 이름이 채택된 이래 1953년 제3판이 발행될 때까지 이 이름이 유지되고 있다. 한국 정부가 문제를 제기한 1994년 이후, 개정판(제4판) 편집을 추진할 때마다 동해 수역의 표기 문제는 한국, 북한, 일본 사이에 끊임없는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관련국 간에 합의하라는 사무국과 회원국들의 제안은 결국 결실을 보지 못하고 2002년 회람된 미발간 제4판 초안에서는 동해 수역 부분을 백지로 남겨두기까지 하였다¹⁾.

이번 제18차 총회는 S-23 제4판 발행을 위해 2009년 6월부터 활동해온 워킹그룹의 논의결과를 보고하고 앞으로의 진전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였다. S-23 워킹그룹에서 동해 수역의 표기는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졌으나, 두 이름을 병기하자는 한국의 입장과 ‘일본해’ 단독표기를 고집하는 일본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단, 표기의 방법에 대해서, 해당 수역의 본문에 하나의 이름과 유보사항을 표기하고 다른 이름을 이어진 쪽 또는 부록에 수록하자는 호주의 제안이 있었으나 이 또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제18차 총회는 동해 수역 표기에 대한 한국, 일본,

북한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한국은 2천년 이상 사용된 ‘동해’ 이름의 역사적 정당성과 현재의 사용 추세에 근거해 ‘동해’와 ‘일본해’를 함께 써야 한다는 병기의 논리를 강조했다. 두 개 이상의 국가가 공유하는 지리적 실체에 대해 공통의 이름에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각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는 IHO와 유엔의 결의, 병기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IHO의 관행, 이미 두 이름을 병기하는 세계 지도책, 도서, 논문의 사례, 항해 안전의 도모, 그리고 단일 이름에 합의가 없을 때 취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 등이 병기가 필요하다는 핵심 논점이었다(IHO, 2012, 127-128).

일본은 ‘일본해’가 19세기 초부터 확립된 관용지명(conventional name)이며 한국도 IHO에 가입한 후 40년 동안 이 이름을 사용했고 세계 주요 국가의 모든 해도에서 이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하나의 표준지명을 선정한다는 S-23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복수 지명은 현존하는 국제적 이름에서 하나를 채택하기 어려울 때 예외적으로, 특히만, 해협, 군도 등의 경우에 허용된다는 점을 덧붙였다(IHO, 2012, 126-127). 한편 북한은 한반도의 동쪽 수역에 원래의 이름인 ‘동해’를 표기해야 하며 ‘일본해’는 역사적, 지리적, 기술적 유효성이 없는 이름으로서 관련국 간에 합의 없이 1929년부터 강압에 의해 사용되어 왔다고 주장했다(IHO, 2012, 129).

동해 표기 당사국의 주장이 펼쳐진 후, 총회의 논의는 S-23 발간의 방법에 집중하여 전개되었다. 당사국 간에 표기에 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합의된 부분을 먼저 발간하자는 장별 발간의 제안이 미국에 의해 이루어졌다. 1953년 제3판을 기본 문서로 사

용하자는 이 제안은 모든 관련된 국가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제안국의 판단으로 철회되었으나, 일본은 그 내용을 활용해 부분 발간을 전제로 한 새로운 워킹그룹의 조직을 다시 제안하였다. 이 제안을 논의할 것인지에 대한 표결 결과, 참석 국가들 대부분의 기권으로 부결되었으며²⁾, 이후 총회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은 채 논의를 마쳤다.

요약하자면, 동해 표기의 본질에 관해서 제18차 국제수로 총회에서는 역사적 합법성, 지명 확립 여부, 동해 수역 표기의 역사와 현재의 상황, 지명 병기에 관한 IHO의 규범(결의)과 관행 등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다른 해석이 노출되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지명연구의 주제와 연결되는 부분으로서 지명 병기, 그리고 지명제정의 대상인 지리적 실체로서 바다의 본질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지명 표기의 방법과 관련하여 워킹그룹의 논의 내용 중에서 주목할 것은 주요 언어에서 사용되는 동해의 모든 토착지명과 외래지명을 표로 만들어 삽입하는 프랑스의 제안이었다. 동해에 연결해 있는 세 나라 언어의 토착지명(endonym), 즉 한국어의 ‘동해’, 일본어의 ‘日本海’, 러시아어의 ‘Японское море’와 이들의 로마자 표기, Donghae, Nihonkai³⁾, Yáposkoye móre, 그리고 영어, 프랑스어 등에서 쓰는 외래지명(exonym)인 East Sea, Mer de l’Est 등을 모두 포함하는 참고표를 만들어 제시하자고 한 것이다. 논의 과정에서 프랑스는 이 제안을 철회하고 워킹그룹 탈퇴를 선언했지만, 각 언어에서 사용하는 모든 지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지하는 제안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Table 1. The reference table proposed by France at the S-23 Working Group of the IHO.
국제수로기구 S-23 워킹그룹에서 프랑스가 제안한 참고표

Endonym KR/P		Endonym RU		Endonym JP		Exonym en	Exonym fr	Exonym es
동해	Donghae	Японское море	Yapóskoye móre	日本海	Nihonkai	East Sea	Mer de l’Est	tbd
						Sea of Japan	Mer du Japon	tbd

note: 표의 마지막 열은 스페인어 표기를 위한 부분으로서, 프랑스는 ‘추후 결정될 것임(to be decided)’의 의미로 ‘tbd’를 표기하였음.

2) 제10차 유엔지명표준화 총회(2012년 7월~8월, 뉴욕)

유엔지명표준화회의(UNCSSGN)는 세계대전 이후 정확한 지명 표기를 위해 1967년 창설된 기구로서 국내의 지명표준화 촉진, 각국의 표준화된 지명정보 확산, 지명의 통일된 로마자표기법 채택 등을 그 주된 활동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Choo, 2011b). 이 회의 총회에서는 ‘하나의 주권을 초월하는 지리적 실체’ 또는 ‘두 개 이상의 국가에 공통되는 지형’ 항목의 안건을 상정하고 있으며, 동해 표기 문제가 논의되는 것도 주로 이 부분이다.

제10차 유엔지명표준화 총회에서 개진된 동해 수역 표기에 대한 각국의 입장은 3개월 전에 있었던 IHO 총회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한국은 ‘동해’가 갖는 2천년 이상의 역사성과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현재 세계 주요 출판사, 방송사, 지명위원회에서 이 이름을 인정하는 추세, ‘동해’를 사용하는 선박의 항해 안전성 등을 강조하고, 유엔결의에 의해 ‘동해’와 ‘일본해’ 두 이름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합

리적인 해결방안임을 주장했다(Republic of Korea, 2012; United Nations, 2012, 34). 일본은 ‘일본해’가 1830년대 이후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된 정착된 국제적 이름으로서 유엔이나 IHO의 결의가 규정하는 공유된 지형이 아닌 ‘바다’임을 강조했다(Japan, 2012; United Nations, 2012, 34). 북한은 ‘동해’ 표기가 갖는 역사적 정당성에 바탕을 두어 ‘일본해’ 표기가 식민지배의 잔재임을 주장했다(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2; United Nations, 2012, 33). 총회에서 동해 표기 관련 논의는 이렇게 3개국이 각각의 입장을 개진한 후 아무 결정 없이 종료되었다. 당사국 간의 합의에 의한 해결을 촉구하는 의장과 몇 국가의 언급 정도가 있었을 뿐이다(United Nations, 2012, 34).

제10차 유엔지명표준화 총회의 동해 표기 논의에서 지명 연구의 주제와 관련해서 추가로 관심을 가질 부분은 한국이 언급한 문화유산으로서의 동해 이름과 토착주민과 정서적으로 밀착된 대상으로서 동해, 그리고 일본이 제기한 ‘국제적 이름(international name)’의 개념이었다. 이에 관련해서는 다음 장에서

Table 2. Discussion points regarding the naming of the sea between Korea and Japan and topics of the geographical toponymy. 동해 수역 표기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논점과 지리학적 지명연구의 주제

	The 18 th IHC (2012, 4)	The 10 th UNCSSGN (2012, 7~8)
Korea’s poi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istorical legitimacy of <i>East Sea</i> • current use by Koreans and world citizens • concurrent use of two nam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 the IHO and UN resolutions – in accordance with IHO and international practices – for navigational safety – as the most reasonable solu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istorical legitimacy and cultural heritage value of <i>East Sea</i> • current use by world map-makers, broadcasting companies, government names board • concurrent use of two nam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or navigational safety – in accordance with IHO and UN resolutions
Japan’s poi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ea of Japan</i> as a conventional name established since early 19th century, as also used by Korea for 40 years after joining IHO • multiple naming exceptionally allowed when multiple international names exist, typically for bay, strait, channel and archipelag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ea of Japan</i> as an international name established since the 1830s • It is a sea, not a shared feature noted at the IHO and UN resolutions.
Topics of the geographical toponym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actice of dual (multiple) naming • sea as a geographical feature to be named • The sea as a geographical feature with strong emotional ties and the name <i>East Sea</i> as a cultural heritage • concept of ‘international name’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IHO와 유엔지명표준화 총회에서 논의된 동해 표기 관련 주요 논점과 지리학적 지명연구와 관련된 주제를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3) 국제사회에서 동해 표기 추세

세계 지도와 교과서에 나타난 동해 표기 추세의 최근 통계는 한국 외교통상부의 2009년 10월 조사에 의한 28.07%이다. 87개 국가의 944개 지도(지도책 592권, 낱장지도 142장, 교과서 169권, 지리부도 41권)에서 ‘동해’ 표기(병기 또는 단독 표기)는 28.07%, ‘일본해’ 단독 표기는 65.89%, 무표기 및 기타 표기는 6.04%로 나타났다. 이 동해 표기 비율은 2000년 2.8%, 2005년 10.9%, 2007년 23.8%에 비해 월등히 증가한 수치로 평가된다. 출판물의 종류별로는 지도책 33.1%, 지리부도 31.7%, 낱장지도 26.8%, 교과서 10.1%로서 지도책 및 지리부도의 동해 표기 비율이 다소 높았다. 발행기관별로는 민간발행 28.52%, 정부발행 24.78%로서 정부 차원에서도 민간과 유사한 수준의 표기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Table 3은 조사시기별 추세를 보여준다.

각국 정부 지명관리기구의 동해 표기 추세와 관련하여 2012년에 주목할 사실은 오스트리아 지명위원회(Arbeitsgemeinschaft für Kartographische Ortsna-

menkunde, AKO)가 자국 교육기관들에게 ‘일본해/동해(Japanisches Meer/Ostmeer)’ 병기를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이다(AKO, 2012, 123). 국제적 지명논의에서 차지하는 오스트리아의 중요한 위상을 감안할 때, 이 결정은 큰 파급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2010년 ‘일본해(동해)’ 병기 결정을 내렸던 헝가리 지명위원회는 다시 ‘일본해’ 단독 표기로 환원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조선일보, 2012. 11. 1).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여전히 ‘일본해’를 표준 지명으로 채택하고 있다.

민간 지도제작사 및 교과서 출판사 중에서 미국과 영국의 경우 ‘동해’ 표기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미국과 영국의 주요 아틀라스에서 소수 출판사를 제외하고는 2000년대 초, 중반에 모두 ‘동해’ 병기를 채택한 것으로 나타난다(Choi, 2011)⁴⁾. 미국의 주요 대학교재에서는 필자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두 출판사(Wiley와 McGraw Hill)는 두 이름을 병기, 한 출판사(Pearson)는 일본해 단독표기를 채택하는 추세이다(Choi, 2011)⁵⁾.

이렇게 최근 국제사회에서의 동해 수역 표기의 추세를 보면, 두 이름을 병기하는 표기 원칙을 채택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단, 병기의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즉 어떤 이름을 먼저 쓸 것인지, 괄호를 쓸 것인지 사선을 쓸 것인지 등이 결정의 요소가 되고 있다. 또한 두 이름을 모두 표기하기에 공간

Table 3. Trends of naming the sea between Korea and Japan, as shown in world maps.
세계 지도에 나타난 동해 표기 추세

time	surveyor	object		results		
		number of countries	number of maps	East Sea (single or dual use)	Sea of Japan (single use)	others
2000. 10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60	392	2.8%	97.2%	excluded
2005. 10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67	331	10.9%	89.1%	
2007. 2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Republic of Korea	75	353	23.8%	74.2%	2.0%
2009. 9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Republic of Korea	87	944	28.07%	65.89%	6.04%

Sourc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Republic of Korea, 2010, Mimeo.

이 부족한 소속척 지도에서나 한국과 일본 각 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대속척 지도에서는 어떤 표기를 쓸 것인지가 또 다른 결정을 필요로 한다.

3. 동해 표기와 지리학적 지명연구의 주제

동해 표기 문제는 해당 국가 간 합의를 거쳐야 하는 정치적인 해결을 필요로 하는 문제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현재 단독표기를 고집하는 일본 측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정치세계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방법과 그 정치적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힘들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던 것이다(Choo, 2010b, 9-10). 또한 표기 관련 각 주체들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단계에 따라 설득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도 필요하다. 그러나 여기서는 동해 표기의 이슈를 지명연구의 주제와 연결하는 데에 주력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학술적 가치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동해 표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본다.

1) 지명 병기의 문제

복수의 지명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언어적인 필요에서 시작했다. 즉, 지명 사용자가 그 지명이 가리키는 대상을 자신의 언어로 인식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것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언어의 지명을 함께 쓰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독일의 도시 쾰른을 'Köln (Cologne)'이라고 썼다면 Köln은 독일어 사용자, Cologne은 영어 사용자를 위한 표기가 된다. 마찬가지로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해협을 일컫는 이름으로서 English Channel은 영어, La Manche는 프랑스어 사용자를 위한 표기로 병기할 수 있다. 뉴질랜드나 하와이에서 원주민 언어로 된 지명을 로마자로 표기하여 병기하는 것도 같은 경우다.

소수 민족 언어가 존재할 때 그 언어로 된 지명을 반드시 병기하도록 법으로 규정한 경우도 있다. 오스

트리아에서는 소수 민족 언어인 슬로베니아어, 크로아티아어, 헝가리어의 사용자 비율이 어느 정도를 넘는 경우 그 언어의 지명을 반드시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Hausner, 2012)⁶⁾. 그 비율은 1976년 초기 법 제정 당시 25%였으나 2001년도에 10%로 하향 조정하여 더 많은 소수 언어 지명이 표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것은 소수 민족 지명이 갖는 가치를 존중한 결과라고 해석된다.

'East Sea'(또는 이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 각 언어의 표기)를 'Sea of Japan'(또는 이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 각 언어의 표기)과 병기할 것을 주장하는 것은 언어 사용의 측면과는 매우 다른 출발점을 갖는다. 이것은 한국인이 사용하는 한국어 이름 '동해' 또는 그 로마자 표기 'Donghae'가 아니라 각 언어에서 '동해'에 상응하는 번역된 이름을 써달라고 요청하는 것이고, '동해'라는 뜻에 담긴 한국인의 깊은 정서적 밀착을 존중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일본은 'Sea of Japan'(또는 동일한 의미의 각 언어 표기)이 19세기 중반 이전에 이미 자국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제적으로 정착된 이름으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다른 이름이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 일본이 이 바다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름이 뚜렷하지 않았다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조하는 것은 각 언어권에서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이름이 존중되는 원칙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미국과 영국의 지명위원회는 공용어인 영어에서 가장 많이 통용되는 하나의 지명을 사용하는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이 원칙에 의하면 영어권에서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Sea of Japan'이 표준지명이 된다.

그러나 지명 병기가 언어적 필요에 의해 시작되었지만 지명에 담긴 정체성과 그 지명을 사용하는 주민들의 정서를 존중해서 복수지명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논의과정에서 프랑스가 한국어와 일본어 각각의 토착지명인 '동해'와 '日本海' 뿐 아니라, 'East Sea'와 'Sea of Japan'에 해당하는 각 언어의 외래지명을 모두 망라한 표(Table 1)를 제공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표기 언어에 상관없이 주민들이 원하는 의미가 재현된 지명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받

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유엔지명회의와 IHO의 결의도 ‘다른 이름하에 있는’ 공유된 지리적 실체에 대한 병기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⁷⁾ 해당국이 원하는 지명 표기의 가능성을 폭넓게 열어두고 있다.

지명 병기와 관련하여 지리학적 지명연구에서 보다 관심을 가질 부분은 병기하는 각 지명과 그 지칭 대상의 관계에 대한 사용자들의 인식, 그리고 병기의 대상 자체가 갖는 특성에 관한 것이다. 하나의 지명에 다양한 문화적, 정치적, 상징적 의미를 부여한 상태에서 또 다른 지명이 사용되는 것은 그 실체의 인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임에 틀림없다. 기존의 지명과 연계되어 갖고 있던 그 장소 또는 지리적 사상에 대한 생각, 상징성, 관계에 혼동을 가져올 수 있고, 여러 개의 지명이 하나의 대상에 존재하는 각기 다른 부분을 일컫는 이름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영향은 복수의 지명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인식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을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언어적 필요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명 병기가 보다 큰 스케일의 지리적 실체를 대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지명 병기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 국가 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고 국가 내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표기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⁸⁾. 우리나라 행정구역 개편의 사례를 보아도 경합 지명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병기되는 경우는 하나도 없었다(Chi, 2012). 이것은 공공 부문의 적절한 통제가 가능한 국가 내의 수준에서는 지명 병기를 허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행정적 낭비와 혼동을 감수할 필요가 없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그러나 서로 다른 지명에 대한 합의가 어려운 국가 간의 맥락에서는 각각의 이름을 존중하여 병기하는 것이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더 심해질 수도 있는 분쟁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이 된다.

병기의 방법도 관심을 끄는 주제이다. 복수 지명을 사용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표기의 순서와 방법(사전, 괄호 또는 줄 바꿈)에 대한 결정을 수반한다. 어떤 경우라도 복수의 지명이 동등한 위상으로 다루어 지기는 어렵다. 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지명의 기득권을 인정하여 우위적인 위치로 표기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간주할 수도 있으나 이것은 다른 지명의 사용

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지도가 표현하는 영역이나 주제, 또는 축척 등 지도의 맥락에 따라 병기의 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겠으나 최종적인 병기의 방법은 정치적인 결정을 피하기 어렵다. 병기가 결정되었더라도 소축척 지도에서는 하나의 지명만 표기할 수도 있고, 조그마한 분쟁이라도 피하기 위해 어떤 이름도 표기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동해 수역의 경우 두 이름을 병기하는 방법은 궁극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시각도 존재한다(Woodman, 2012).

2) 지리적 실체로서 바다의 특성에 관한 논의

한국이 지명 병기의 국제규범으로 삼고 있는 유엔지명회의 결의 Ⅲ/20과 IHO 기술결의 A.4.2.6에 대해 일본과 뚜렷한 이견을 갖고 있는 부분은 동해가 과연 이 결의들이 규정하고 있는 “둘 이상 국가의 주권하에 있거나 둘 이상의 국가 사이에 분할되어 있는 지리적 실체⁹⁾”에 해당하느냐 하는 것이다. 일본은 동해 수역이 한국, 일본, 북한의 영해를 제외하면 대부분 공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이 결의를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한다. IHO 결의에 표현된 사례들, 즉 만(bay), 해협(channel, strait), 군도(archipelago)만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동해는 어떤 주권에도 속하지 않는 바다(sea)라고 주장한다(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2009, 5-6).

한국은 이에 대한 반론의 근거를 국제법적 규범에서 들고 있다. 1982년 채택되고 1994년 효력이 발생된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이 그것이다. 이 협약 122조에서 “폐쇄해 또는 반폐쇄해(enclosed or semi-enclosed sea)”를 “둘 이상의 국가들에 의하여 둘러싸이고 좁은 방수구로 다른 바다나 대양에 연결되거나 전부 또는 그 대부분이 둘 이상 연안국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구성되는 만, 내만 또는 바다¹⁰⁾”로 정의하고 123조에서는 “폐쇄해 또는 반폐쇄해를 둘러싸고 있는 국가들은 그들의 주권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 서로 협력할 것¹¹⁾”을 규정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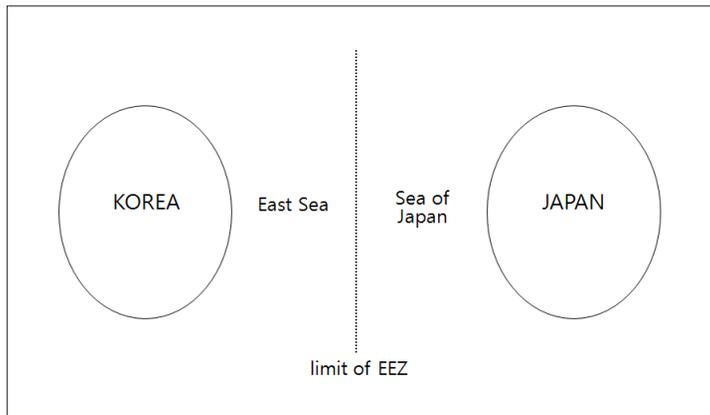
있는데, 동해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반폐쇄해로서 동해는 한국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나뉘고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는 ‘주권적 권리 (sovereign right)’가 인정되므로 “둘 이상의 국가 사이에 분할되어 있는 지리적 실체”이며, 병기를 권고하는 이 결의가 적용된다는 것이다(Park, 2009).

그러나 동해 수역의 경우에 이 결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유엔 결의 Ⅲ/20은 육상지명만을 염두에 두고 제정되었으며, 이 결의가 채택된 1977년에는 반폐쇄해나 배타적 경제수역과 같은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그것이다(Woodman, 2012).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배타적 경제수역, 주권적 권리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여 바다 이름에 적용할 새로운 결의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최근에는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등에 적용되는 주권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연안국이 선호하는 이름을 인정하고 국제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는 결의안이 제안되기도 하였다(Raper, 2012).

지리적 실체로서 바다의 구분과 위상, 그리고 바다 각 부분에서 적용되는 국가 주권의 범위 등에 관한 논의는 지명 부여의 대상이 갖는 본질에 관한 것으로서 지명연구의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구축되어 있는 해양법적 규정에 기초하여 지리

학적 담론을 추가해야 할 것으로 본다. 반폐쇄해의 사례로 들고 있는 동해, 발트해, 흑해, 지중해와 폐쇄해인 카스피해 각각이 갖는 정치지리적 특성과 주변국가의 주권 행사 관례, 그리고 명칭 사용의 역사와 분쟁 등을 비교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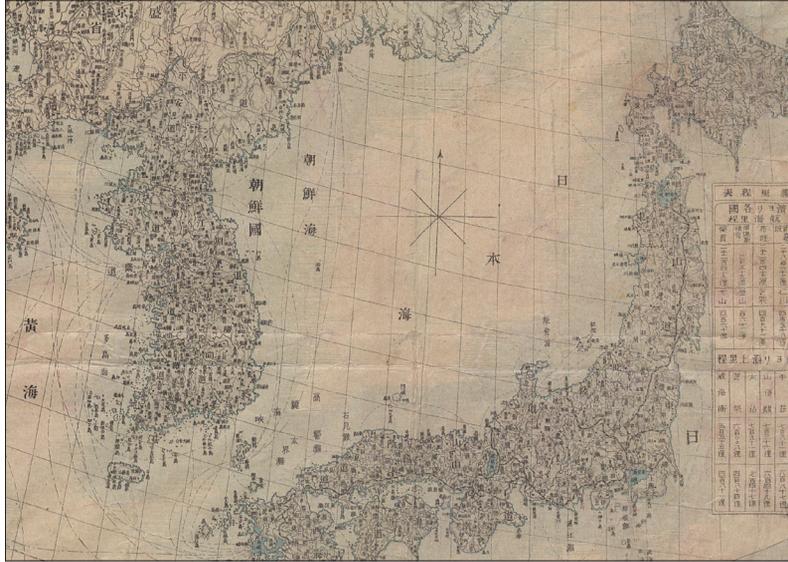
하나의 지리적 실체인 바다를 분리하여 각각에 별도의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바다의 특성에 대한 논의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주제이다. 하나의 대상에 대해 각 언어권의 이름이 갖는 토착지명 또는 외래지명의 지위에 대한 규명(Choo, 2011a)과 더불어, 다른 언어로 된 ‘남’의 지명과 차별화된 우리 언어로 된 ‘우리’ 지명이 갖는 경계의 규명은 여전히 흥미로운 관심사다. 이 경계는 지명에 대해 동질적 인식을 갖는 ‘사회집단(social group)’(Jordan, 2011) 또는 ‘공동체(community)’(Jordan, 2012)가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해 가는지와 관련 있다. 동해 수역에 대한 한국인과 일본인의 차별화된 인식이 경계로 확인되고 각 수역의 명칭이 표기될 수 있다면 문제는 해결 가능하다. Choo(2009; 2011a)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가 그 인식과 명칭의 경계가 될 수 있음을 제안한 바 있다(Figure 1 (a)). 그 경계가 분명하지 않지만, 19세기 말에 ‘朝鮮海’와 ‘日本海’ 두 개의 지명을 별개로 표기한 지도도 발견된다(Figure 1 (b)). 이 지도가 일본에서 발간된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a) A model of separating and naming the sea between Korea and Japan (Choo, 2009; 2011a)

동해 수역의 분리와 별개 명칭 부여 모델

Figure 1. Separating and naming the sea between Korea and Japan. 동해 수역의 분리와 명칭 부여(계속)



(b) Names used in a Japan-China-Korea map published in Japan (1894)
 「日清韓三國全圖」(1894년 日本 弘文館 발행)에 나타난 동해 수역 표기

Figure 1. Separating and naming the sea between Korea and Japan. 동해 수역의 분리와 명칭 부여

3) 정서적으로 밀착된 무형문화유산으로서 동해 명칭

동해 명칭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한국의 주장은, 바다로서의 동해가 한국인의 삶에 정서적으로 아주 가깝게 밀착된 존재이고 따라서 ‘동해’ 이름에 애착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 이렇게 정서에 호소하는 접근방법은 각국의 지명기구와 지명전문가들을 설득하는 데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동해가 한국인에게 갖는 의미를 그 이름과 연결하여 고찰한 연구는 역사, 민속 분야의 몇몇 연구(Yee, 1995; Lee and Oh, 2010; Lee, 2011)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어렵다. 최근 유엔 지명회의에서 주목하는 무형문화유산으로서 지명의 가치를 고려할 때(Choo, 2010a; 2011b), 한국인의 삶에 있어 동해 바다가 차지하는 무게와 ‘동해’ 명칭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여기서 Watt(2009, 21-23)가 정리한 지명에 담긴 문화유산의 요소를 ‘동해’ 명칭에 대입해보는 것은 재미있다.

- 고향 의식: ‘동해’라는 이름을 부여하는 행위를 통해 형성된 공동체와 동해 경관 사이의 공간적 관계
- 기억과 기념: ‘동해’ 명칭이 보유하고 있는 이야기, 이미지, 기억, 기념
- 이동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모습: ‘동해’ 명칭의 확산을 통한 인간과 문화의 이동경로, 그리고 상호작용의 방향과 정도의 추적
- 사회적 태도에 대한 창: 특정 시점에서 ‘동해’ 명칭에 반영된 사회적 태도의 반영

바다와 그 이름에 대한 정서적 밀착은 여러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경제적으로는 어로, 운송, 자원 개발, 산업의 공간이며 여가, 관광, 향해의 장소이기도 하다. 환경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공간의 의미도 있다. 인간의 정신활동과 관련해서는 승배와 종교의 공간, 희망과 평화의 공간, 그리고 다양한 문학, 음악, 민속을 창출하고 영감을 주는 곳이기도 하다. 한국인들에게 ‘동해’는 이러한 정서적 유대와 현실적 도움을 주는 공간의 이름으로 인식된다.

동해 바다와의 정서적 밀착과 그 이름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주제는 지명 부여 또는 사용의 주체에 관한 것과 지명 부여의 대상에 관한 것으로 나뉘어진다(Choo, 2012). 첫째는 ‘동해’ 명칭과 관련하여 누가, 어느 정도의 강도로 정서적 밀착을 느끼는가 하는 문제다. 어떤 사회집단 또는 공동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주된 주제가 되며, 이를 위해 연령, 성, 교육수준, 경험 등의 변수에 따라 차별화된 집단들이 어떻게 달리 느끼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명칭의 대상인 동해와의 거리에 따라 밀착의 정도가 달라지는지, 즉 거리 조락의 효과가 있는지를 밝히는 것도 흥미롭다.

둘째는 ‘동해’ 명칭의 대상인 바다의 한계에 대한 것이다. 사람들이 ‘동해’라는 이름과 연관하여 독특한 정서적 밀착을 느끼는 곳은 어디까지인가가 중요한 물음이다. 한국인이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 전역에 대해 동일한 감정을 느끼지는 않을 것인데, 그러면 어디가 정서적 밀착의 한계가 될 것인가? 해안에서 보이는 곳, 즉 수평선까지인가, 행해나 어로가 이루어지는 곳까지인가, 아니면 두 나라 사이의 배타적 경제 수역 경계까지인가 등의 질문에 답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에 어떤 개인 또는 집단의 차이가 작용하는지, 바다와 관련된 활동의 종류나 경험의 정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현실에서의 느낌과 지도를 볼 때의 인식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을 밝힐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주제에 덧붙여 정서적 밀착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또 다른 주제를 이룬다. ‘동해’ 명칭과 관련된 정서적 밀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한다고 할 때, 어떤 요인에 의해 얼마나 변하는지가 중요한 관심사가 된다. 개인과 집단의 경험, 교육의 정도, 환경의 변화가 그 변화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또는 바다의 다른 쪽에 있는 사회집단들이 부르는 다른 이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중요한 주제이다.

4) 지명 용어의 정립

제10차 유엔지명표준화 총회에서 일본은 ‘일본해’가 19세기 초반 이래 ‘확고하게 정착된 국제적 지명(a well-established international name)’이라고 주장했

다. 의장은 ‘국제적 지명’의 정의에 대해 물었고 일본은 “IHO가 통일성, 항해 지원 및 안전성을 위해 하나의 국제적 지명을 지정하도록 요청받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대답을 대신했다(United Nations, 2012, 34). 의장이 물었던 것은 ‘국제적 지명’이라는 말이 유엔 지명전문가그룹이 펴낸 「지명표준화를 위한 용어사전(Glossary of Terms for the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에 없기 때문이었다.

이 용어사전이 국가 또는 국제적인 수준에서 쓰이는 지명에 대해 정의한 것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UNGEGN, 2002).

- 국지적 지명(local name): 지리적으로 한정된 언어 공동체의 일부에 의해 그 지역 내의 실체에 부여된 지명
- 공식 지명(official name): 국가와 같이 법적으로 구성된 지명 기구에 의해 공인된, 관할권 내에 적용되는 지명
- 표준화된 지명(standardized name): 주어진 실체에 대한 여러 별칭 지명들 중에서 선호되는 지명이라고 지명 기구로부터 인정된 이름

일본 주장의 맥락을 보면 ‘국제적 지명’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은 국제적으로 형성되어(자국의 뜻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지명이란 의미를 나타내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는 아직 정의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국제적’이라 할 때 어느 정도 수준을 만족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주목할 것은 제10차 유엔지명표준화 총회까지 유엔지명전문가그룹 부의장을 지낸 알제리의 Brahim Atoui는 ‘국제적 지명’을 ‘국제적으로 사용되지만 어떤 분쟁의 대상도 되지 않는 지명’으로 정의하자고 제안한 점이다(Atoui, 2012). 그의 정의를 받아들인다면 East Sea, Sea of Japan 어떤 것도 국제적 지명이 아니다.

국제기구에서 객관적인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용어의 정의가 필수적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향후 용어사전에 필요한 용어들을 추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동해 표기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데에 사용해 온 유엔지명회의 결의에 표현된 용어들이나 지리학적 지명연구를 통해 한국 지명의 특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용어들이 그 대상이 된다. 이미 Atoui(2012)는 ‘국제적 지명’ 이외에 ‘공유된 지리적 실체(shared geographical feature)’, ‘무주권 하의 실체(feature under no sovereignty)’, ‘공통된 이름(common name)’, ‘분쟁 지명(conflicting name)’, ‘주권 지명(sovareign name)’ 등의 정의를 제안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병기(dual names or dual naming)’의 정의도 제안해 볼만 하다.

4. 결론

지난 20년간 한국의 동해 표기 운동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이 문제를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끌여가지 않고 학술적 논리와 근거에 의해 각 국가의 지명전문가들을 설득했기 때문이라고 평가된다. 그 설득의 과정에서 세계적인 지명 논의의 흐름을 파악하게 되었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 과정을 통해 관련된 지명 연구의 주제를 확인하였고 이는 다시 지리학적 지명 연구의 촉발을 가져왔다.

이 연구에서는 동해 표기와 관련하여 2012년에 있었던 두 차례의 중요 국제기구 회의의 결과를 검토하고 지명연구의 주제를 추출하였다. 4월에 있었던 제18차 국제수로기구 총회에서는 동해 표기와 직접 연결되는 ‘해양과 바다의 경계’ 책자 발간에 관한 절차적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지만, 한국과 일본 간에 동해 표기에 관해 뚜렷이 다른 해석과 주장이 개진되었다. 이로부터 지명 병기의 문제와 지명제정의 대상인 지리적 실체로서 바다의 본질에 관한 문제가 관심 있는 주제로 확인되었다. 7월~8월에 걸친 제10차 유엔 지명표준화 총회에서 특별히 다른 주장이 제기되지는 않았다. 다만, 전반적인 지명 표준화, 관리 등을 논의하는 의제의 성격에 따라, 정서적으로 밀착된 문화유산으로서의 지명 문제, 그리고 지명 표준화와 관련된 명확한 정의 규정의 문제가 추가 주제로 떠올랐다.

이 주제들에 대한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명 병기가 향후 동해 표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논리와 수단이 된다고 볼 때, 지명에 담긴 정체성과 지명 사용자의 정서를 존중한 지명 병기의 필요성을 강화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병기하는 각 지명과 그 지칭 대상의 관계에 대한 사용자들의 인식, 그리고 병기의 대상 자체가 갖는 특성, 병기의 방법과 사례 등이 이에 포함된다.

둘째, 국제기구에서 채택한 권고를 적용하기 위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리적 실체로서 바다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해양법이 규정하는 반폐쇄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기초 및 사례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며, 특히 각 바다의 정치지리적 특성과 주권 행사, 그리고 명칭 사용을 연결시키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는 별개로 바다를 분리하여 각각에 별도의 이름을 부여하는 방안의 타당성도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된다.

셋째, 동해 바다가 한국인들에게 부여하는 정서적 밀착에 근거하여 지리적 실체로서의 바다와 그 명칭과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는 문화유산으로서 지명의 요소가 강조되는 현 시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동해’ 명칭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특성에 따른 정서적 밀착의 차이, 그리고 명칭의 대상인 바다에 존재하는 정서적 밀착의 경계, 그리고 그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들이 연구의 대상이다.

넷째, 객관적이고 투명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적절한 용어의 정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유엔지명회의가 사용하는 용어사전에 추가가 필요한 용어를 확인하고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여태까지 유엔의 지명 논의가 로마자를 사용하는 지명 사용의 경우에 치중해 왔다면, 이에서 확대하여 우리나라 지명의 특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용어를 선정하고 제안할 수 있다.

동해 표기는 정치적인 해법이 필요한 문제이다. 외교적인 노력에 의해 더 확산될 수도, 상대방의 외교적인 반격에 의해 더 축소될 수도 있다. 그러나 동해 표기는 근본적으로 지명 표기의 문제이므로 그 해결의 논리는 지명연구의 결과로부터 공급되어야 한다. 이

렇게 보면 표기 분쟁이 지명연구의 진전을 가져오는 동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 5년 후 국제수로기구와 유엔지명표준화 총회가 다시 열렸을 때에는 더 풍성한 지명연구의 결과가 보고되기를 기대한다.

주

- 1) 수역 번호 7.6에 해당하는 동해 수역은 페이지 번호만 기재된 채, 수역 번호, 명칭, 경계에 대한 서술, 도면 등 모든 내용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였다.
- 2) 1953년 발간된 S-23 제3판을 기준으로 하여 합의되는 부분부터 부분적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본 제안의 논의여부가 부결되었다는 것이 “국제수로기구 회원국들이 명칭 문제를 논의하는 데 ‘일본해’가 단독 표기된 S-23 3판을 더는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한 것으로 해석(Chang, 2012, 235)”되기도 한다.
- 3) 당초 프랑스가 제시한 표에 토착지명 ‘日本海’의 로마자 표기 부분은 공란으로 되어 있었다. 이는 표 작성에서 발생한 단순한 누락으로 보고 여기서는 ‘Nihonkai’로 채워 넣었다.
- 4) Choi(2011)에 의하면, 미국과 영국의 아틀라스 출판사에서 Collins는 2003년, DK는 2005년, National Geographic은 2005년, Oxford는 2004년, Philip’s는 2003년, Rand McNally는 2005년, The Times는 2003년부터 팔호에 ‘East Sea’를 병기하고 있다. Hammond는 유일하게 ‘Sea of Japan’ 단독표기를 고집하고 있는 출판사다.
- 5) 출판사 Wiley에 의해 발간된 Harm De Blij의 책은 모두 ‘East Sea (Sea of Japan)’으로 표기하고 있어 주목된다.
- 6) ‘소수 민족집단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방 법률’, 즉 Volksgruppengesetz(VGG), BGBl.(= Federal Legal Gazette) 1976/396의 규정이다.
- 7) UNCISG 결의 III/20(1977)와 IHO 기술결의 A.4.2.6 (1974)가 이에 해당한다.
- 8) 각 행위주체들의 브랜딩 또는 상업적 영향을 받는 지하철, 전철 역 이름의 경우 예외적으로 병기된 사례가 많다.
- 9) “geographical features that are under the sovereignty of more than one country or are divided among two or more countries” (UNCISG Resolution III/20)
- 10) “a gulf, basin or sea surrounded by two or more States and connected to another sea or the ocean by a narrow outlet or consisting entirely or primarily of the territorial seas and exclusive economic zones of two or more coastal

States” (UNCLOS Article 122)

- 11) “States bordering an enclosed or semi-enclosed sea should cooperate with each other in the exercise of their rights and in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UNCLOS Article 123)

참고문헌

- Arbeitsgemeinschaft für Kartographische Ortsnamenkunde (AKO), 2012, *Empfehlungen zur Schreibung geographischer Namen in österreichischen Bildungsmedien*, Wien: Verlag der Österreich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 Atoui, B., 2012, **Are the terms of the UNGEGN toponymic glossary sufficient or shall we have to enrich them?**,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Seminar on Sea Names: A Round Table Discussion, Seoul, Korea, 26 October 2012.
- Chang, D.-H., 2012, The name East Sea: Accomplishments of the 18th International Hydrographic Conference and future directions (동해 표기: 제 18차 국제수로기구 총회(IHC)의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 *Territory and Seas*, Vol.3, Seoul: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n Korean).
- Chi, S.-H., 2012, The political geography of place names: The decisions of city names in the process of administrative district reorganization, *Journal of the Association of Korean Regional Geographers*, 18(3), 310-325 (in Korean).
- Choi, J., 2011, Recent trend in naming East Sea in atlases and geography textbooks, Paper presented at the 17th International Seminar on Sea Names, Vancouver, Canada, 17-21 August 2011.
- Choo, S., 2005, The naming of East Sea in the context of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Journal of Geography*, 45, 211-226 (in Korean).
- Choo, S., 2007, Recent progress for restoring the name East Sea and future research agenda, *Journal of the Korean Cartographic Association*, 7(1), 1-9.

- Choo, S., 2009, Endonym, geographical feature and perception: the case of the name East Sea/Sea of Japan,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44(5), 661-674.
- Choo, S., 2010a, **Geographical names as a par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aper presented at the Winter Conference of the Association of Korean Regional Geographers, Gwangju, 29 January 2010 (in Korean).
- Choo, S., 2010b, Geopolitics of the East Sea and the issue of its naming, *Journal of the Korean Cartographic Association*, 10(2), 1-11.
- Choo, S., 2011a, **The name of a sea as a transboundary feature**, in Jordan, P., Bergmann, H., Burgess C. and Cheetham, C., eds., *Trends in Exonym Use*, Hamburg, Verlag, pp.49-60.
- Choo, S., 2011b, Discussions on geographical names in the United Nations and the implications for the geographical toponymy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46(4), 443-465 (in Korean).
- Choo, S., 2012, **Identifying seas and their names: Koreans' emotional ties to the seas as reflected in their names**, Paper presented at IGU/ICA Commission/Working Group on Toponymy, 32nd IGC, Cologne, 26-30 August, 2012.
-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2, The issue of standardizing the sea name betwee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Japanese Archipelago in the North-East Asian continent, **Tenth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E/CONF.101/CRP39.
- Hausner, I., 2012, Principles and rules of 'dual naming' in Austria and in Germany,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Seminar on Sea Names: A Round Table Discussion, Seoul, Korea, 26 October 2012.
-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2012, *VIIIth International Hydrographic Conference, Monaco 23-27 April 2012, Report of Proceedings, Vol. I*, Monaco: IHO.
- Japan, 2012, Japan's position on the name "Sea of Japan" in relation to papers and materials prepared for item 16(a) and other items of the agenda, Tenth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E/CONF.101/CRP11.
- Jordan, P., 2011, The endonym - name from within a social group, in Jordan, P., Bergmann, H., Burgess C. and Cheetham, C., eds., *Trends in Exonym Use*, Hamburg, Verlag, 9-20.
- Jordan, P., 2012, Towards a comprehensive view at the endonym/exonym divide, Paper presented at the 12th Meeting of the UNGEGN Working Group on Exonyms, Gdańsk, Poland, 16-18 May 2012.
- Lee, K.-S., 2004, Geographical stud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concerning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the geographical name of East Sea**,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39(1), 1-12 (in Korean).
- Lee, S. S. and Oh, I. W., 2010, Geographical cognition and the literary geography figuration of the "Dong Hae" in Joseon Dynasty, *Journal of the Association of Korean Regional Geographers*, 16(5), 441-456 (in Korean).
- Lee, Y. C., 2011, East Sea in Korean lives through the ages, Paper presented at the 17th International Seminar on Sea Names, Brussels, Belgium, 17-20 August 2011.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2009, *The One and Only Name Familiar to International Community*, Sea of Japan.
- Park, N., 2009, *A Basic Study With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Law on the Name East Sea* (동해지명에 관한 국제법적 기본연구), Research Report,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n Korean).
- Raper, P., 2012, Is the East Sea a feature beyond a single sovereignty?, **Paper presented at the 18th International Seminar on Sea Names**, Brussels, Belgium, 7-9 March 2012.
- Republic of Korea, 2012, **Report on the progress in consultations on the naming of the sea area betwee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Japanese Archipelago**, Tenth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E/CONF.101/CRP40.

- UNGEGN, 2002, *Glossary of Terms for the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New York: United Nations.
- United Nations, 1993, *Sixth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New York, 25 August-3 September 1992, Vol. I. Report of the Conference*, New York: United Nations.
- United Nations, 2012, *Draft report of the 10th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as adopted on Friday 10 August 2012*.
- Watt, B., 2009, "Cultural aspects of place names with special regard to names in indigenous, minority and regional languages," in Jordan, P., Bergmann, H., Cheetham, C. and Hausner, I., eds., *Geographical Names as a Part of Cultural Heritage*, Institute für Geographie und Regionalforschung der Universität Wien, Kartographie und Geoinformation, Wien.
- Woodman, P., 2012, *An Imaginative Solution: Contextual*

naming of the Sea between Japan and Korea,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Seminar on Sea Names: A Round Table Discussion, Seoul, Korea, 26 October 2012.

- Yee, S.-T., 1995, The geographical name of 'Tonghae(East Sea)' in the Korean historical documents,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Seminar on the Geographical Name of East Sea, 24-25 May, 1995.

교신: 주성재,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경희대학교 지리학과(이메일: sjchoo@khu.ac.kr, 전화: 02-961-9360, 팩스: 02-961-0251)

Correspondence: **Sungjae Choo, Department of Geography**, Kyung Hee University, Seoul 130-701, Korea (e-mail: sjchoo@khu.ac.kr, phone: +82-2-961-9360, fax: +82-2-964-0250)

최초투고일 2012. 12. 17

수정일 2012. 12. 18

최종접수일 2012. 12. 22